<h1>나 혼자만 레벨업-37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x37d2a36cb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7화</p>  
<p>그들 너머에 있는 게이트는 C급치고는 좀 작은 크기로 보였다.</p>  
<p>탁.</p>  
<p>탁.</p>  
<p>봉고에서 내려선 진우와 유진호 곁으로 헌터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.</p>  
<p>어째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.</p>  
<p>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헌터들이 가장 많았고, 환자로 보이는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다.</p>  
<p>심지어 협회나 길드에서 받아 주지 않는 미성년자 여자애까지 있었다. 대충 보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.</p>  
<p>"애를 데려와도 괜찮냐?"</p>  
<p>"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. 그냥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엄청 커져서 잘 안 쓸 뿐이랍니다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'그럼 괜찮겠지.'</p>  
<p>어차피 게이트 안에는 본인과 유진호만 들어갈 예정이라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0퍼센트에 수렴했다.</p>  
<p>이들은 숫자를 채우는 용도였다.</p>  
<p>C급 게이트를 공략하는 데는 모두 10명의 헌터가 필요하니까. 그래서 나머지 여덟 명을 모집했다.</p>  
<p>물론 여덟 명도 자신들이 여기 온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.</p>  
<p>헌터 자격증은 있지만 사정상 헌터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. 그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이 주로 모집에 응했다.</p>  
<p>유진호가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"저는 이번 레이드의 대장을 맡게 된 유진호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분은 저와 함께 던전에 들어가실 성진우 헌터님이십니다. 여러분들은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입구 근처에서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."</p>  
<p>헌터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.</p>  
<p>"저기... 정말 그렇게만 하면 3백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"</p>  
<p>사냥할 필요 없음.</p>  
<p>아니, 던전에 들어올 필요조차 없음.</p>  
<p>레이드 1회당 3백만 원씩 지급.</p>  
<p>레이드에 참여했다고 기록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대가치고는 보수가 너무 좋았다.</p>  
<p>대동강 물을 퍼 주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조건이 이렇게 좋다 보니 행여 사기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들 불안한 눈치였다.</p>  
<p>"조건은 보장합니다."</p>  
<p>유진호의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.</p>  
<p>눈빛도 진지해졌다.</p>  
<p>"대신 여기서 뭘 보고 들었는지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.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서에 적힌 대로 받으신 금액의 열 배를 변상하셔야 하니까요."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헌터들이 수군거렸다.</p>  
<p>대체 저 두 사람은 던전 안에서 뭘 하려고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을까?</p>  
<p>궁금했지만 아무도 물을 수 없었다.</p>  
<p>그것도 비밀 유지 조항의 일부였다.</p>  
<p>-던전 안에서의 일에 대해 일절 질문 금지.</p>  
<p>진우는 자신의 특이 체질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, 유진호는 마스터가 되겠다는 계획을 위해 팀원들의 입단속을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헌터들은 두 사람에게 질문하는 대신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귓속말을 나누었다.</p>  
<p>"아니, 그런데 두 사람이서 C급 던전을 돌 수가 있나?"</p>  
<p>"그렇게 강한 헌터들 같진 않은데?"</p>  
<p>"둘이서 C급 게이트를 돌 실력이면 차라리 대형 길드에 들어가서 상위 던전을 클리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?"</p>  
<p>"그러게 말이야."</p>  
<p>다들 의심스럽다는 말투였지만 한 명도 빠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당연했다.</p>  
<p>조건이 너무 좋으니까.</p>  
<p>진우도 2백만 원에 혹했었다.</p>  
<p>그때 황동석 일행이 제시했던 돈보다 백만 원 더 얹어 주는 것은 계약에 비밀 엄수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설명에 시간이 제법 지체됐다. 시계를 보던 진우가 유진호에게 한마디 뱉었다.</p>  
<p>"슬슬 들어가자."</p>  
<p>"알겠습니다, 형님."</p>  
<p>깍듯하게 대답한 유진호가 박수를 짝짝 쳐서 시선을 모았다.</p>  
<p>"뭐,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절대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혹시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거나 그만두고 싶으신 분?"</p>  
<p>"..."</p>  
<p>"..."</p>  
<p>당연히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이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.</p>  
<p>"아, 형님. 잠시만요."</p>  
<p>깜박하고 있던 게 생각났는지 유진호가 급히 봉고차 뒤로 달려갔다. 그러고는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챙겨 입더니 곧 뒤뚱거리며 걸어왔다.</p>  
<p>"그게... 뭐냐?"</p>  
<p>"이태리 장인 길드에서 만든 강화 갑옷 풀 세트입니다. 형님. 저희 둘이서 던전을 돌려면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"</p>  
<p>진우가 손으로 자기 이마를 짚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머리끝에서부터 발끝을 뒤덮고 있는 쇳덩이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숨이 콱콱 막혀 올 정도로 갑갑했다.</p>  
<p>"왜 그러십니까, 형님?"</p>  
<p>보다 못한 진우는 유진호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장검을 뺏어 바닥에 떨어뜨렸다.</p>  
<p>"어, 어?"</p>  
<p>장검을 주우려던 유진호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엎어졌다.</p>  
<p>철퍼덕.</p>  
<p>진우는 올라오기 시작한 분노를 속으로 눌러 삼키며 힘겹게 말했다.</p>  
<p>"좋은 말로 할 때 벗고 와라."</p>  
<p>"...네."</p>  
<p>그런데 유진호가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진우를 불렀다.</p>  
<p>"형님..."</p>  
<p>"또 왜?"</p>  
<p>"저 좀 일으켜 주십시오."</p>  
<p>유진호가 내민 손을 바라보던 진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이 정도면 괜찮습니까, 형님?"</p>  
<p>"그래."</p>  
<p>결국 투구만 쓰는 걸로 합의를 봤다.</p>  
<p>유진호는 만족스런 얼굴로 게이트 안에 뛰어들었다.</p>  
<p>그 뒤를 진우가 소리 없이 따라 들어갔다.</p>  
<p>두 사람이 차레차례 던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헌터들이 게이트 주변으로 슬금슬금 모여들었다.</p>  
<p>한 명이 걱정스레 말했다.</p>  
<p>"하는 거 보니 영 시원찮던데..."</p>  
<p>다른 한 사람이 게이트를 보며 맞장구를 쳤다.</p>  
<p>"그러니까요."</p>  
<p>두 사람의 대화를 시작으로 헌터들의 말문이 트였다.</p>  
<p>다들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냈다.</p>  
<p>"저러다 던전 안에서 덜컥 둘 다 죽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여?"</p>  
<p>"저희야 뭐 계약금 다 받았으니..."</p>  
<p>"그거야 그렇긴 한데."</p>  
<p>"잠깐, 저 두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?"</p>  
<p>"그러니까 그게."</p>  
<p>다리에 깁스를 한 남자가 빠르게 폰을 꺼내 두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.</p>  
<p>"유진호, 성진우..."</p>  
<p>목발을 짚고 있는 그가 아슬아슬해 보였는지, 아니면 검색 결과를 빨리 알고 싶었던 것인지, 다른 헌터 하나가 깁스 남자를 부축하며 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.</p>  
<p>"뭐야? 공대장이 D급?"</p>  
<p>그 말에 헌터들이 경악했다.</p>  
<p>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검색 결과였다.</p>  
<p>"그 옆에 있던 사람은 아예 E급인데요?"</p>  
<p>"E급이면 C급 게이트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?'</p>  
<p>"D급 E급 둘이서 C급 던전을 돈다고?"</p>  
<p>"그게 가능해?"</p>  
<p>"게다가 공대장이라는 분 레이드 기록이 아예 없어요."</p>  
<p>"아니, 젊은 사람들이 왜...?"</p>  
<p>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괜히 협회에서 C급 게이트를 공략할 때 최소 인원 10명에 C급 헌터 다섯 명이라는 최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다.</p>  
<p>"쯧쯧."</p>  
<p>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헌터가 품속에서 담배를 찾아 꺼내더니 입에 물었다.</p>  
<p>"젊음의 객기가 여러 사람 잡는 법이지."</p>  
<p>담배 연기가 허옇게 피어올랐다.</p>  
<p>"..."</p>  
<p>"..."</p>  
<p>헌터들은 말이 없어졌다.</p>  
<p>남 죽는 데 일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찝찝했다.</p>  
<p>생판 남이라도 자기 눈앞에서,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앞에 있는 게이트 안 어딘가에서 사람이 죽는 걸 바랄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어디 그것뿐인가?</p>  
<p>돈도 아까웠다.</p>  
<p>계약금이야 미리 받았다지만 계약서에 적힌 대로 남은 18번의 레이드를 마저 따라다닐 수 있다면 훨씬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.</p>  
<p>그러나 아쉽게도 두 사람이 살아 돌아올 확률은 희박했다.</p>  
<p>"이거...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"</p>  
<p>"그러게. 괜히 우리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해?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우우웅.</p>  
<p>게이트에서 진우와 유진호가 튀어나왔다.</p>  
<p>"헉, 헉, 헉."</p>  
<p>유진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지친 표정의 두 사람에게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.</p>  
<p>"오오."</p>  
<p>"그래도 무사히 도망쳤네!"</p>  
<p>"다행이구먼."</p>  
<p>헌터들이 기쁜 얼굴로 환영해 주었다.</p>  
<p>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데 걸린 시간 때문에 입구 근처를 헤매다 간신히 빠져나온 줄 알았다.</p>  
<p>그런데 웬걸.</p>  
<p>이내 헌터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.</p>  
<p>누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.</p>  
<p>"게, 게이트가 닫히고 있어!"</p>  
<p>뭐라고?</p>  
<p>다들 게이트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맙소사!"</p>  
<p>"저기!"</p>  
<p>"보, 보스를 잡았다고?"</p>  
<p>던전의 보스를 잡았을 때처럼 게이트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있었다.</p>  
<p>헌터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, 진우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.</p>  
<p>"다음은 어디냐?"</p>  
<p>"여기서 1시간 정도만 가면 됩니다, 형님."</p>  
<p>"가자."</p>  
<p>진우와 유진호가 척척 봉고로 향했다.</p>  
<p>헌터들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헌터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유진호가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빨리빨리 갑시다, 헌터님들. 오늘 게이트 두 개 더 돌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."</p>  
<p>헌터들의 입이 쩍 벌어졌다.</p>  
<p>툭.</p>  
<p>머리가 희끗한 중년 헌터 윤귀원은 너무 놀란 나머지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몰랐다.</p>  
<p>'둘이서 C급 던전을 박살 내고 또 레이드를 하러 간다고?'</p>  
<p>윤귀원만이 아니다.</p>  
<p>헌터들은 동시에 전부 같은 생각을 했다.</p>  
<p>'저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?'</p>  
<p>\*\*\*</p>  
<p>1일차.</p>  
<p>끄어어어어.</p>  
<p>좀비들이 떼 지어 달려왔다.</p>  
<p>"형님, 옵니다!"</p>  
<p>"오냐."</p>  
<p>진우가 몰려오는 좀비들 사이를 매끄럽게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그럴 때마다 좀비들의 머리통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. 좀비들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다.</p>  
<p>마지막 남은 한 마리.</p>  
<p>푹!</p>  
<p>"끄어억!"</p>  
<p>진우가 놈의 가슴에 검을 꽂아 넣자 익숙한 기계음이 울렸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뒤로 물러나 있던 유진호가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.</p>  
<p>"형님, 멋지십니다!"</p>  
<p>"마정석."</p>  
<p>"아, 넵."</p>  
<p>유진호는 얼른 가방을 꺼내 마정석들을 수거하기 시작했다. 그런데 그때.</p>  
<p>레벨업 알림에서 그치지 않고 기계음이 연속으로 이어졌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'스킬: 상급 단검술 Lv.1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띠링!</p>  
<p>['스킬: 급소 찌르기 Lv.1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띠링!</p>  
<p>['질주' 스킬의 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환해졌다.</p>  
<p>'새로운 스킬들이 생겼네?'</p>  
<p>이게 얼마만의 일인지.</p>  
<p>진우는 기쁜 마음에 곧바로 스킬 정보창을 띄웠다.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, 상급 단검술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2, 살기 Lv.1, 은신 Lv.1, 급소 찌르기 Lv.1</p>  
<p>질주 스킬을 자주 썼더니 레벨이 2로 올라갔다.</p>  
<p>그리고 패시브와 액티브에 각각 상급 단검술과 급소 찌르기가 생겨나 있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